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로서 우화가 크게 번성했던 시기였다. 독일 계몽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볼프는 우화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여 직관적인 인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훈과 이야기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도덕 명제를 복합적인 해석 없이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여기서 도덕 명제란 곧 우화의 기능 중 하나인 교훈의 전달을 의미했다. 우화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낸다는 점과 문학의 교육적 효과를 증시한 당대의 기조에 직격이었다. 당시에 우화는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사고력을 견인하여 한 차원 너머에 있는 '계몽'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여겨졌다.

괴테의 우화 「여우 라이네케」(1793)는 괴테의 온전한 창작 작품은 아니었다. 이는 1752년에 출간된 고체트의 「여우 라이네케」를 개작한 작품이다. 형식적으로는 이 산문에 6보격 운율을 부여해서 사시로 바꾸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했던 종교적이고 교훈적인 주석을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일부 내용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에피소드를 첨가하기도 하였다.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우화의 대부분을 '알레고리'라고 해석했다. 알레고리는 표면적 내용의 심층에 다른 의미를 은유적으로 담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우화는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표현 양식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 시작된 자연과학적 지식의 폭발적 증대가 문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동물이 등장하는 '비현실적' 설정은 수사학적 알레고리로서 자연스럽게 수용되어 왔다면 이제는 이러한 존재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학에 대해 이루어진 이러한 '개연성에 대한 요구'는 그 기원을 타고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주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역사가는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만 작가는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한다'고 정의함으로써 문학이 허구를 통해 보편을 전하는 예술임을 밝혔다. 즉 개연성은 문학창작을 정당화하는 개념이었다.

인간의 자연과학적 지식의 양과 질이 풍부해지면서 서사가 '객관적' 지식과도 합치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연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개연성은 크게 플롯 상의 개연성과 합리성을 충족하는 개연성과 같은 '내적 개연성'과 작품 외의 객관적 지식과 합치해야 한다는 '외적 개연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18세기에 우화는 '외적 개연성' 개념과 관련해 다시금 정당화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계승한 볼프 학파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범주를 구분했다. 즉 문학에 구현된 세계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와 다를지라도 이는 일종의 '가능한 세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세계는 우리와 사는 세계인 실세계와 더불어 신이 창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세계 중 하나이다. 현실 세계와는 달리 그 외 모든 세계는 가능성의 개념으로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로 비록 그것이 실재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고유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본성과 움직임 그리고 법칙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가능성을 내포하기에 모든 모순에서 자유롭다. 그렇기에 외적 개연성에 초점을 맞춘 우화 비판은 신의 무한한

창조력에 대한 긍정으로 정당화된다.

한편 ㉠ 고체트 또한 우화의 개연성에 관해 논하였다. 그는 개연성을 '무조건적 개연성'과 '가설적 개연성'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자연의 일반적인 순리에 따라 판명되는 것으로, 자연과학적 지식과의 비교를 통해 개연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한 작품의 세계관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말한다. 그런데 자연의 일반적인 순리와 어긋나는 것은 고체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체트는 외적 개연성을 볼프 학파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세계'에 기초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 괴테의 경우는 어떠할까? 괴테에 따르면 카스티의 우화시 「말하는 동물들」(1982)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처럼 지성을 갖고 있는 동물들을 보며 우리가 '그렇듯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그 동물들이 규정된 방식에서 어긋남이 없이, 즉 예외없이 합목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괴테는 이러한 행동 특성만으로 우화에 게 요구되는 개연성이 충족된다고 생각했다. 즉 작품 내 합리성에 대한 충족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고체트의 경우에도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괴테는 우화의 '외적 개연성'에 대해서는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1.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여우 라이네케」를 개작한 괴테의 작품은 고체트의 원본과 상당한 부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② 18세기 우화는 고차원적 인식을 통해 계몽을 지향하면서도 독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함으로써 교훈을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 ③ 18세기 우화 작품에는 은유적 기법을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 존재하지 않았다.
- ④ 르네상스 이후 자연과학적 지식이 대두되면서 우화는 문학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화에 대한 문제에 봉착했다.
- ⑤ 볼프 학파는 신이 창조한 세계라고 해서 창조주의 전지전능에 근거하더라도 모든 모순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고 보았다.

2. 윗글을 바탕으로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부분의 우화가 이미 내적 개연성을 충족한다고 본다.
- ② ㉠은 ㉡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 개연성이 발견되는 경우라도 가설적 개연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우화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 ③ ㉡은 ㉠과 마찬가지로 우화의 구조가 개연성을 띄지 않더라도 내적 개연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여긴다.
- ④ ㉡은 ㉠과 달리 무조건적 개연성이 충족되기만 하면 내적 개연성이 보장받는다고 여긴다.
- ⑤ ㉠과 ㉡은 모두 내적 개연성과 외적 개연성을 둘 다 만족해야 우화에 대한 진정한 정당성이 성립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3.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예술의 진실’과 ‘자연의 진실’의 구분은 괴테의 예술론에서 한 평생 반복되었던 중요한 대립 개념이다. 만약 누군가가 괴테의 우화에서 그것은 ‘진실하지도 않고 개연적이지도 않다’고 불평했다면, 괴테는 예술작품의 진실은 자연의 진실과는 다른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괴테에게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적 일관성에서 비롯되는, 예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모든 외적인 것들을 집어 던지고 목살하는 태도임에 분명하다. 괴테에게 우화의 개연성과 정당성은, 예술작품 세계 안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진행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다.

- ① 자연적 진실을 예술의 진실과 구별하는 것으로 보아, 괴테는 고체트와 달리 자연과학적 지식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예술의 진실을 자연적 진실과 구별하는 것으로 보아, 괴테는 볼프 학파와 마찬가지로 신이 만든 세계 가운데 가능한 세계를 차용하여 작품의 합목적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작품의 내적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아, 괴테는 고체트와 마찬가지로 문학에 대한 자연과학의 개연성 요구를 모순없이 종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모든 외적인 것들을 집어 던지고 목살하는 태도로 보아, 괴테는 고체트와 달리 자연과학적 개연성의 요구에 보다 대립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합목적적 개연성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으로 보아, 괴테는 고체트와 마찬가지로 외적 개연성을 내적 개연성에 비해 부차적이라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